

# 전북자치도, '인터배터리 2024' 참가

국내 최대 배터리 전시회... 전북 공동관 운영·홍보

오늘부터 8일까지 3일간 서울 코엑스서 18개국 참여

전북특별자치도는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인터배터리(INTER BATTERY) 2024'에 참가해 전북테크노파크, 새만금개발청, 군산시의 함께 전북특별자치도 공동관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2013년을 시작으로 올해 12번째 개최를 맞이한 '인터배터리 2024'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한국배터리산업협회, 코엑스, KOTRA가 공동 주관하는 최대 규모의 이차전지 산업 전문 전시회로 전 세계 18개국 579개 배터리 업체, 1,896개의 부스가 참가해 역대 최대 규모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번 전시회에선 소형 배터리 시장부터 에너지, 자동차산업 및 에너지저장장치(ESS)와 전기자동차(EV) 중대형시장까지 배터리 관련 다양한 신제품 및 기술들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고 부대행사로 배터리 신기술 관련 컨퍼런스, 배터리 잡페어, 세미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전북특별자치도는 공동관 운영을 통해 '글로벌 이차전지 핵심소재 공급기지 조성'이라는 비전을 내세워 전북특별자치도의 이차전지 산업 현황,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새만금 투자 인프라 환경 등 전북도만의 강점 및

비전 등을 홍보한다.

아울러 지난 1월 18일 '글로벌 생명경제도시'로 거듭난 전북특별자치도 5대 추진 분야 및 주요 특례와 더불어 (재)전북테크노파크의 이차전지 핵심소재 제조 구축 시설 및 장비 지원방안 등을 홍보할 예정이다.

도내 입주 및 투자 기업 중에서는 성일하이텍(리사이클링, 소재), 하이드로리튬(수산화리튬), 대주전자재료(음극재), 이규브머터리얼즈(음극재), 에너이버배터리솔루션(분리막), 이피캠텍(전해질), 에너지11(나트륨 이온 배터리) 7개 기업이 전시회에 참여한다.

이 중 성일하이텍은 부대행사로 배터리 잡페어 부스를 운영해 직무안내, 채용계획 등 기업 소개를 나시고, '리튬이온(Li-ion) 배터리의 리사이클링 현

황 및 신기술 소개'를 주제로 세미나를 진행할 계획이다.

최창석 전북자치도 미래산업과장은 "전북 공동관 운영을 통해 전북자치도의 이차전지 산업이 적극 홍보돼 기업의 매력적인 투자지로 꼽혀 이차전지 산업의 중심지로 거듭나길 바란다"며, "국가첨단전략산업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된 만큼 이차전지 초격차 기술 확보와 산업 육성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이규택 전북테크노파크 원장은 "국내 최대 규모의 이차전지 산업 전문 전시회인 '인터배터리 2024'에 전북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를 직접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이번 기회를 적극 활용해 전북도내 이차전지 기업 유치와 산업 활성화에 이바지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재훈 기자

## '전북 청년마을 만들기' 5개소 선정

개소당 1억 원 지원... 지역사회 활기

전북특별자치도는 '2024년 전북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할 청년마을 5개소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전북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은 지역 특색에 맞는 청년마을을 발굴하여 지역 활력을 도모하고 청년들이 지역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2년부터 시행해 총 15개 청년단체를 지원했다.

지난 1월 22일부터 2월 8일까지 신청 모집한 결과 총 14개 팀이 접수했으며, 지역자원 연계성 및 구체적 사업계획 등을 검토해 1차 서류심사, 2차 현장심사 및 발표심사를 거쳐 최종 5개소를 선정했다.

선정된 단체는 개소당 1억원이 지원되며, 청년과 지역주민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해,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을 예정이다.

김재시 '오후협동조합'은 지역 유희공간을 재창조하고 지역자원을

활용한 청년 창업 컨설팅 지원 및 시제품 제작, 팝업스토어 운영 등 단계별 청년 창업 정착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김재시 '영업협동조합'은 예비청년농들의 안정적 지역 정착을 위해 현장 중심의 작물별 농업교육, 체험 프로그램, 지역 청년 농업인과의 소통 등 실천 농업 기회를 제공하여 청년들의 지속가능한 영농 활동을 돕는다.

장수군 '사계 art&culture'는 지역 내외 전문 문화예술인들과의 교류·연계를 확대하여 청년예술인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민의 특색있는 문화 콘텐츠를 제작하여 지역 문화자원을 계승 발전시킨다.

고창군 '청년짚다'는 사람과 사는 모양(체류형 관광 프로그램), 로컬에 사는 모양(지역컨텐츠 개발 및 청년마을 축제), 찬란하게 하는 모양(나의 브랜딩, 창업기획 등)프로그램으로 지역자원을 중심으로 한 지속가능한 라이프스타일을 구축한다. /김재훈 기자

## 도내 마을기업 13개소, 국비지원

전북자치도는 행정안전부에서 시행하는 '2024년 마을기업 지정' 공모사업에 총 13곳이 선정됐다고 5일 밝혔다. 13곳중 7곳은 재지정, 6곳은 고도화로 지정됐다.

마을기업이란, 지역 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의 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지역 주민에게 소득 및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해 설립·운영되는 마을단위의 기업으로 2010년 행안부 시범사업으로 시작됐다. 마을기업은 먼저 시·군 적격성 검토를 거쳐 도·중간지원기관이 현지실사 및 광역심사를 진행한 후 행안부에서 현지실사 및 최종심사를 통해 지정된다.

재지정 마을기업(2회차)으로 지정 시 사업계획에 따라 최대 3,000만원이 지원되며, 재지정 마을기업 사업종료 이후 별도 신청과 심사를 통해 고도화(3회차) 마을기업으로 선정 시 최대 2,00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 공모에 선정된 마을기업은 보조금 지원을 통해 연말까지 △제품개발, △교육, △컨설팅, △시설·장비 구축 등 마을기업의 성장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

천제창 기업유치지원실장은 "마을기업은 지역 내에서 주민 일자리를 창출하고, 공동체 활성화에 많은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도내 마을기업이 주민들과 함께 내실있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내 마을기업은 2010년 9곳 지정으로 지속 성장해왔으며 2023년 말 기준 119곳이 지정·운영 중이다. /김재훈 기자



주광주 중국 총영사관(전북, 전남, 광주 영사구역) 구정치(顧景奇, 사진 왼쪽) 신임 총영사 등 영사관 일행이 5일 전북특별자치도를 방문해 김관영 도지사와 한중 경제협력과 관계 발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 신임 구정치 주광주 중국총영사, 전북자치도 방문

김관영 도지사, 한중 경제협력·전북자치도 발전에 관심 요청

주광주 중국 총영사관(전북, 전남, 광주 영사구역) 구정치(顧景奇) 신임 총영사 등 영사관 일행은 5일 김관영 도지사를 예방하기 위해 전북특별자치도를 방문했다.

제6대 총영사로 부임한 구 정치 총영사는 한국근무는 처음이지만 한중 교류협력과 관계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인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김관영 도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이후 처음으로 맞이한 외빈이다"며 "새만금신단에 대한 중국기업의 투자수요가 상승하는 시점에서 신임 총영사가 한중 경제협력과 전북특별자치도의 발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전북특별자치도를 처음으로 공식 방문하는 구총영사는 김관영 도지사, 국주영은 도의회 의장, 서거석 교육감을 차례로 예방하고, 전주의 대표 명승지인 한옥마을 등을 시찰했다.

한편 주광주 중국총영사관은 호남지역에 위치해 전북자치도를 관할하는 유일한 외교공관이며 총영사의 임기는 4년이다. /김재훈 기자

## 도, 응급안전안심서비스 확대

독거노인 소득기준 폐지, 노인부부·조손가구 혜택

돌봄 사각지대 해소 위한 수혜자도 대폭 늘리기로

전북특별자치도는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의 대상자 기준을 확대해 독거노인과 돌봄이 필요한 노인부부 및 조손가구에도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노인 및 장애인 가정 내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장비를 설치해 응급상황을 실시간으로 119 및 응급관리요원에 알려 구급·구조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화재 시 119에 자동으로 신고가 접수되며, 이용자의 활동량을 감지해 쓰러짐 등이 의심되는 경우 응급관리요원이 안부를 살피고, 급박한 경우 이용자가 가정 내 설치된 응급호출기 응급버튼을 눌러 119에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서비스가 제공된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그동안 65세 이상 홀로 사는 저소득 어르신과 중증 장애인 등 2만3,000 가구를 대상으로 했으나, 서비스 대상 범위를 확대해 △노인부부 가구 중 건강상 어려움을 겪는 가구, △고령의 부모를 노인인 자녀가 돌보는 2인 가구, △손자녀와

노인이 함께 사는 가구까지 확대해 수혜 대상이 2만7,000여 가구로 늘어날 예정이다.

또한, 올해부터 독거노인 소득기준이 폐지돼, 고독사 예방 등 돌봄 사각지대 해소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전북특별자치도에서는 대상자 기준 확대에 맞춰 지난 2월 15일 도청 종합상황실에서 시·군 간담회를 갖고 올해 사업 방향에 대해 안내했으며, 시·군 및 수행기관과 적극적인 협력으로 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대상자를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

서비스 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김석면 노인복지과장은 "이번 대상자 확대를 통해 지역사회 내 안전·안부확인 등의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과 장애인 등이 적시에 필요한 응급조치가 제공돼 돌봄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jmaeil.com